



전주대 이종근 동문, 국가유산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

전주대학교 이종근 동문(한문교육과 84학번)이 국가유산 보호 유공 포상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종근 동문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한국 '꽃담'을 국가 브랜드화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 '우리 동네 꽃담', '이땅의 다리 산책', '한국의 꽃살문' 등 한국문화 관련 50권의 저서를 펴낸 것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꽃담, 다리, 꽃살문, 전주 한옥마을, 전라감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문, 방송, 다큐멘터리, 잡지, 달력, 국가 사업 참여 등을 통해 국내외에 알렸다.

이종근 작가는 "문인이 국가유산보호 유공 포상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은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한국의 문화 유산을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종근 동문은 전북도민일보 기자, 전민일보 문화부장, 전북문인협회 사무국장, 전주시 문화의집 관장, 한국문화의집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전주문화원 연구위원, 한국서예교류협회 홍보 및 기획 이사, 전북한글학회 회원위원 및 홍보위원장으로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 부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법무보호공단 전북, 굿디자인과 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는 지난 9일 굿디자인(대표 허진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 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위해 협력하며,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보호사업 지원·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우석대 박한호 교수, 민간경비학회 학술상

우석대학교 박한호(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한국민간경비학회 학술대회에서 올해의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최근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박 교수는 '청원경찰 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연구 활동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한호 교수는 "앞으로도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연구를 계속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민간경비학회는 치안정책 및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2000년 설립된 전문학회로, 치안 전문가와 경비산업 전문가 등 약 3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황희원 학부생, 전기재료학회 '최우수상'

전북대학교 황희원 학부생(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 지도교수 김태욱)이 최근 평창에서 열린 '2024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KIEEME 2024)'에서 학부생 경진대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황희원 학생은 '포스폰 산 자기조립 단분자막(PA-SAM)' 물질의 비율을 최적화하고, 산화 알루미늄 기반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 트랜지스터와 뉴로모픽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PA-SAM 물질은 소자의 표면 처리에 특히 효과적이고, 고밀도의 자기조립 단분자층 구조로 소자 표현의 균인성을 높일 수 있다. PFP는 우수한 수분 저항성과 높은 전자 이동성을 제공하며, ODP는 길 알킬 사슬 구조로 인해 강력한 반데르발스 힘을 형성해 화학적 안정성을 높인다.

황희원 학부생은 이 두 물질을 혼합한 소자를 제작, 각각의 비율을 세분화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자의 비선형성(Non-Linearity)을 감소시켜 인간 신경구조를 모방한 뉴로모픽 특성이 크게 개선됨을 밝혀 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시민 일상에 '배움의 즐거움' 선물

익산시, '우리동네 늘 배움터' 성과공유회 개최... 올해 959명 참여

익산시의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이 시민의 일상에 배움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저녁 익산시평생학습관에서 '우리동네 늘 배움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리동네 늘 배움터' 학습자, 강사, 학습매니저 등 50여 명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동네 늘 배움터 사업은 평생학습 접근성이 낮은 읍면동 단위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이다.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평생학습 기관·단체 등 마을 내 장소 사용 확보가 가능한 곳을 배움터로 선정해 주민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 53개 배움터에서 학습자 959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우리동네 늘 배움터 사업에 참여한 테라스카페작은도서관 서동오가리나팀의 공연으로 시작해 활동 영상 상영, 우수 운영기관 표창,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로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학습의 기쁨을 누리고 폭넓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공간 제공 등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학이습지 불어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아침밥에 대한 에피소드 · 지식 공유하다

전북농협, 오아밥 밥상머리 미학 복콘서트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0일 농협 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오아밥 밥상머리 미학(미학) 아침밥 먹기 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북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정된 수상작가 30명, 김영일 총괄본부장, 광미자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정열 전북학교운영협의회장 등이 총 100여 명이 참석해 등이 아침밥 먹기 문화운동을 성황리에 전개하였다.

전북농협은 미래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4주간 문화운동 차원에서 아침밥 먹기 수기 공모전(수상작 30점, 총상금 2천만원)을 진행하였고 이를 갈무리하고자 우수작품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아침밥에 대한 각종 지식을 엮어 책자를 발행하여 이를 기념하고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북 콘서트를 통해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수상작가들은 작품 창작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심사자들은 좋았던 점을 평론하면서 아침밥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영일 본부장은 "아침 쌀밥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좋은 기운을 주는 생활의 지혜"라면서, "전북농협의 문화운



동이 온 국민들의 사랑과 건강이 듬뿍 담긴 행복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면서"고 북 콘서트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행된 오아밥 밥상머리 미학 책자는 비매품으로 발간되며 농협 시군지부를 통해 전북지역 초·중·고 학교에 배포되며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자책도 발간해 국회도서관과 아침밥 먹기 수기 공모전 홈페이지(www.nh2rice.com)를 통해 등재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한국한방고서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열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진안지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진안지구(위원장 강준희)는 10일 한국한방고등학교에서 전주지방검찰청 박영진 검사장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의 김홍식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제17회 청소년 범죄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위원 및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평소 학업태도가 우수하고 모범적인 관내 학생 9명을 선정하여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전주지방검찰청 박재호 수석검사가 한국한방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강준희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청소년 문화향상을 위해 범죄예방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진안지구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 산하의 단체로서, 유해환경 개선사업 및 청소년 범죄예방교육 등 안전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봉면 복지기동대, 한파 대비 커튼 설치 봉사

김제시 진봉면 행복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가 지난 9일 울겨울 한파를 대비해 취약계층 7세대에 커튼 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방 및 주방 등에 커튼을 설치하여 외풍을 차단하고 실내 열 손실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복지기동대는 품평한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해 대상 가구를 위한 맞춤형 커튼을 제작 및 설치했으며, 추운 겨울 대상자의 가정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산면 생활개선회, 연말 맞아 천마차 기탁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0일 생활개선회(회장 유점자)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천마차 42박스(1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산면 생활개선회는 4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매년 환경 개선과 복지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전달받은 천마차는 각 마을 이장과 직원들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이웃 42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성료

정읍시새마을회(회장 이경연)는 10일 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정읍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봉사 성과를 나누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 박일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이상수 전북자치도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이만희 북면새마을부녀회장(대통령상), 강홍구 새마을고교대상동분회장(국무총리상), 김희상 새마을지도자시흥협의회회장(장관상), 송화수 청바지청년새마을연대 회장(장관상) 등 총 46명이 표창을 받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헌신을 인정받았다. 또한 비전실천다짐 퍼포먼스와 새마을노래 제창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의미가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2부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추첨 등 새마을지도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쌀 소비촉진 캠페인도 병행해 지역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확대를 독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대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마을운동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성숙한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수군농민회, 자매결연지와 농산물 교류판매

장수군농민회(회장 최영호)가 자매결연지인 제주시 남원읍 농민회와 함께 9일 군청 광장에서 제주감귤 판매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당일 제주에서 직송된 신선한 제주감귤 10kg 박스 1,600여 개가 준비됐으며, 장수농민회원들이 힘을 모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모두 완판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군농민회와 제주시 남원읍 농민회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 17년째를 맞이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농산물 교환판매를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 이어, 제주시 남원읍 농민회도 장수군에서 생산된 신동진쌀 20kg 300여 포대를 받아 판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수군의 우수 농산물을 제주도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곰드래장애인협회 남원, 후원물품 전달

남원시는 지난 10일 오전 곰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임광호, 이하 지부)가 이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시설장 김은정)'에 물티슈 20박스, 화장지 100개, 뽕튀기 100봉지(환가 2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부에서 1년 동안 마련한 뽕튀기 판매 수익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물품을 마련했으며,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 뽕튀기를 나누어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봉남면 내주마을 섬김옴마를 인증사업 발표회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내주마을에서 지난 6일 어르신들의 공동체활동을 위한 김제시 선정사업인 섬김옴마를 인증받아 다채롭고 풍성한 사업을 진행한 후 마을 잔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인 어르신 켈리리그파피 동아리 활동과 꽃밭가꾸기, 주3회 효도식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을 증진시켜 활기있는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도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8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신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8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